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SG&G(040610)

자동차·부품

요약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 성 기 관	NICE평가정보(주)	작 성 자	안종하 선임연구원
---------	-------------	-------	-----------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G&G(040610)

물류,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기업정보(2021/01/01 기준)

대표자	이의범
설립일자	1993년 11월 08일
상장일자	2000년 04월 27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주요제품	자동차 시트

시세정보(2021/03/12 기준)

현재가(원)	2,51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827
발행주식수	34,087,196
52주 최고가(원)	3,430
52주 최저가(원)	770
외국인지분율	1.72%
주요주주	이의범

■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자동차 시트 제조 기술역량 확보

SG&G는 생활정보지 ‘가로수’ 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코스닥 시장 상장 후 2005년부터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패션, 물류, 자동차 시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였다. 당사는 2007년 물류회사를 인수하였으며, 2009년 관계사인 케이엠앤아이의 자동차 시트 제조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자동차 시트 부품을 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시장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케이엠앤아이와의 적극적인 기술교류 및 협업을 통해 자동차 시트 부품 관련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 COVID-19의 장기화 및 전방산업의 제한적 수요

최근 COVID-19의 글로벌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각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전방산업의 수요성장 정체가 지속하고 있다. 2020년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은 COVID-19 위기 속에서도 내수 및 생산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신차 출시도 줄면서 2021년 내수시장은 역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OVID-19 사태 진정 시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과 완성차 업계의 수요폭증 등으로 자동차부품 산업의 시장규모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매출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 영업전략 마련

당사는 VE(제안활동)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기반으로 완성차 업체인 GM코리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신규 매출처 확보를 중장기적 영업전략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금형제작부문은 한온시스템, 경신 등의 국내 업체 외에도 콘티넨탈 발레오, 세플러 등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는 등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및 품질역량 강화로 향후 잠재적인 시장수요를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2,078.2	0.20	277.2	2.30	(14.2)	(0.12)	(0.33)	(0.11)	106.56	(25)	7,445	N/A	0.39
2018	10,888.2	(9.85)	88.9	0.82	(59.4)	(0.55)	(1.31)	(0.48)	100.22	(96)	7,320	N/A	0.32
2019	9,388.9	(13.77)	117.2	1.25	33.7	0.36	0.56	0.29	79.64	40	7,088	46.47	0.26



기업경쟁력

사업 다각화

■ 물류, 자동차부품, 금형, 원전부품 등 사업 다각화

-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 시장상황에 따른 리스크 대응력 강화
- 기업 내 자원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기술 경쟁력 강화

■ 생산 프로세스의 전문화

-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금형 설계, 생산부터 자동차부품 제조까지 일원화된 생산 프로세스의 구축

■ 기술협업 및 유기적인 소통

-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시트 완제품에 대한 품질 및 기술력 향상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금형 설계 및 제조기술

- 전용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제품 분석, 공정설계 및 부품설계, 3D모델링 기술 확보
-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을 위한 자체 금형 제조기술 보유

■ 프레스 가공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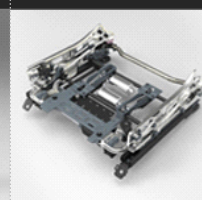
- 프레스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동차부품 제조, 원전부품 제조 등의 사업 영위

주요 제품

Recliner



Track & Drum



Rear Back



시장경쟁력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년도	출하금액	성장률
2014년	52,437억 원	2014~2018년 연평균 1.69%▼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 (품목편)
2016년	55,758억 원	
2018년	48,988억 원	

자동차부품산업

■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방산업



트럭

미니버스

프리미엄버스

최근 변동사항

SG그룹 지배구조 개편

■ SG그룹 주요회사들에 대한 지배회사 지위 해지

- 2020년 1월 1일부로 (주)지엔에스, (주)케이엠앤아이 등 20여 개 회사들에 대한 지배회사 지위 해지
- SG그룹의 지배회사는 (주)에스지유로 변경

전방산업의 제한적 수요 전망

■ COVID-19로 전방산업의 수요성장 정체

- COVID-19 확산세와 장기화로 자동차부품산업 위축
-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부진
- 다만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 시장규모 개선 전망

I. 기업현황

적극적인 M&A 및 신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

동사는 생활정보지 사업으로 출발하여 M&A를 통해 물류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자동차부품사업, 금형 등의 설계,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출 구조 다변화를 이루며 리스크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개요

SG&G(이하 동사)는 1993년 설립되어 생활정보지 “가로수”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며, 2000년 4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2007년 12월 물류회사 (주)네텍스 인수합병 후, 2008년 3월 주력 사업이던 생활정보지 사업을 물적분할 하면서 사명을 가로수닷컴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여 상장하며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안산공장에서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제작하였고, 2013년부터 천안공장에서 금형 및 원전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동사는 3PL(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물류사업부문과 자동차 시트 프레임을 제조하는 자동차부품 제조부문, 금형제조부문, 원전부품 제조부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류사업부문이 매출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주요 주주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이의범으로 15.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관계사인 (주)프라임아이앤티홀딩스, (주)케이엠앤아이 등의 각각 14.37%, 9.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회사 개요 및 주요 주주 현황

회사명	(주)SG&G	대표자	이의범
설립일	1993년 11월 08일	총인원	71명(2020. 09. 기준)
자본금	170.44억 원(2019. 09. 기준)	매출액	518.83억 원(2019년 기준)
주소	(본사 및 자동차부품사업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239-10 (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산단2길 7-27/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삼죽로 186 (금형·원전부품사업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89		
주요 사업	물류사업, 자동차부품 제조사업, 원전부품 제조사업		
주요주주		지분율(%)	
이의범		15.61	
(주)프라임아이앤티홀딩스(최대주주: 이의범)		14.37	
(주)케이엠앤아이(최대주주: (주)에스지고려)		9.26	

*출처: 분기보고서(2020. 09.), KISLINE,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그룹 구조

SG 그룹은 IMF 외환위기를 정보지의 온라인화로 극복하였으며, 이 후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규모를 키워 왔다. 2003년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고려(현 SG고려)를 인수하여 2004년 케이엠앤아이로 물적분할 하였으며, 2005년에는 SK네트웍스의 패션사업체(현 SG세계물산), 2007년에는 충남방직(현 SG충방)을 인수하였다. SG세계물산은 남성 정장 바소와 여성복 ab.f.z 등이 대표 패션브랜드로 백화점, 아울렛, 거리매장 등에 유통하고 있으며, 베트남, 방글라데시, 중국 등 해외 공장을 통해 생산한 옷을 GAP, Old Navy, Banana Republic, Target, Macy's 등 미국 대형 바이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수출하고 있다. SG충방은 옷의 원사, 즉 실과 소재를 만드는 회사로 SG그룹에 편입된 후에는 그룹 주력 사업인 자동차시트 소재도 자체 개발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골프장, 의류생산, 건설, 부동산 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내외 계열사 총 34개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SG그룹의 지배회사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로 해지되었고, 이로 인해 주요 계열사(SG고려, 케이엠앤아이, SG세계물산, SG충방 등)의 연결회계 작성 주체가 에스지유로 변경되었다.

표 2. SG그룹 계열사

상장여부	회사수	회사명
유가증권시장	2	SG세계물산, SG충방
코스닥시장	1	SG&G
비상장법인	18	에스지고려, 케이엠앤아이, 가로수정보, 강서가로수, SG플래닝, 화인씨에스, SG신성건설, 플렉시오, 에스지유, 에이비에스시스템, 한국바둑방송, 지엔에스, 에스지엠, 에스디휴먼텍, 비비시모, 프라임아이엔티홀딩스, SG아름다운골프앤리조트, 지에프티
해외현지법인	13	SG CORPORATION USA, SSV Export Garment Company, Choongnam Vietnam Textile Co., Ltd., UZ-TONG HEUNG Co., Ltd., KMI Mechanisms(Suzhou) Co., Ltd., KM&I America Inc, Saudi Shinsung Co., Ltd., KM&I Automotive Component(YANTAI) Co., Ltd., Shinsung Middle East Co.,Ltd, YES VINA GARMENT Co., Ltd., SG HCMC Co., Ltd., COSMO TEXTILE Co., Ltd., H&H TEXTILES S.A

*출처: 분기보고서(2020. 09.),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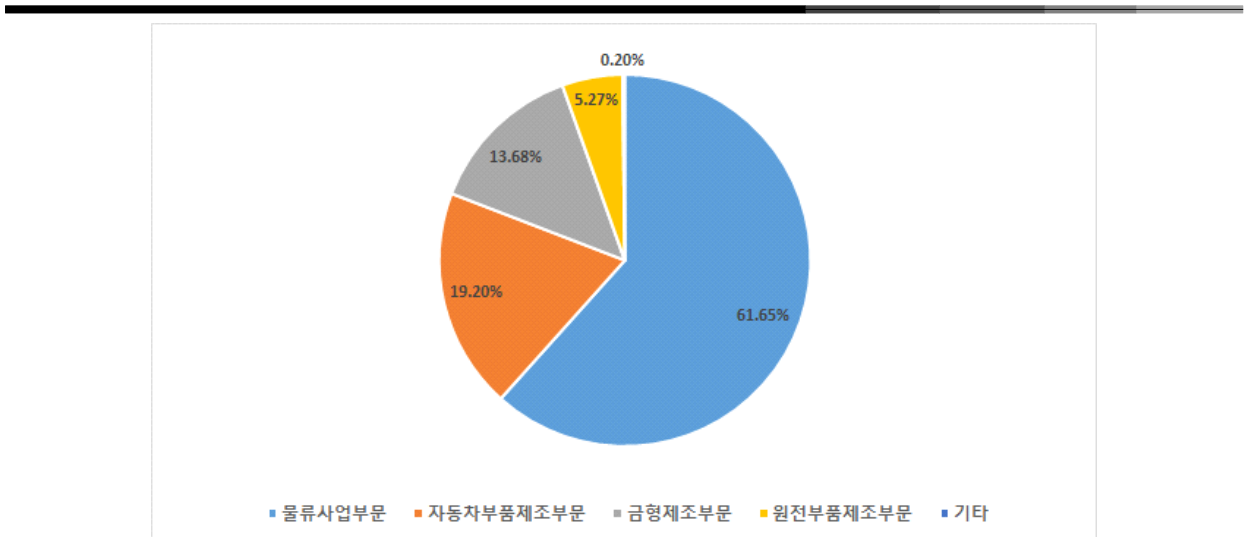
이의범 대표이사는 1993년 동사 설립 이후 20년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15.6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배구조나 경영권에 특별한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사 외에 SG세계물산, SG충방 등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SG그룹의 회장으로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 매출 구조

2020년 3분기까지 매출비중은 3PL과 국제물류 등의 물류사업부문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제조부문이 19.35%, 금형제작부문이 13.7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과 비교 시, 동사의 SG그룹 주요회사들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위가 해지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사의 물류사업부문은 SG세계물산, 케이엠앤아이 등 주요 계열회사의 매출비중이 약 60%를 차지하며, 그 외 업체의 비중이 40%를 차지한다. 자동차부품 제조부문의 경우 계열회사인 케이엠앤아이의 발주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형제작부문은 한온시스템 및 두원공조 등의 발주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매출비중(2020. 01~2020. 09)



*출처: 분기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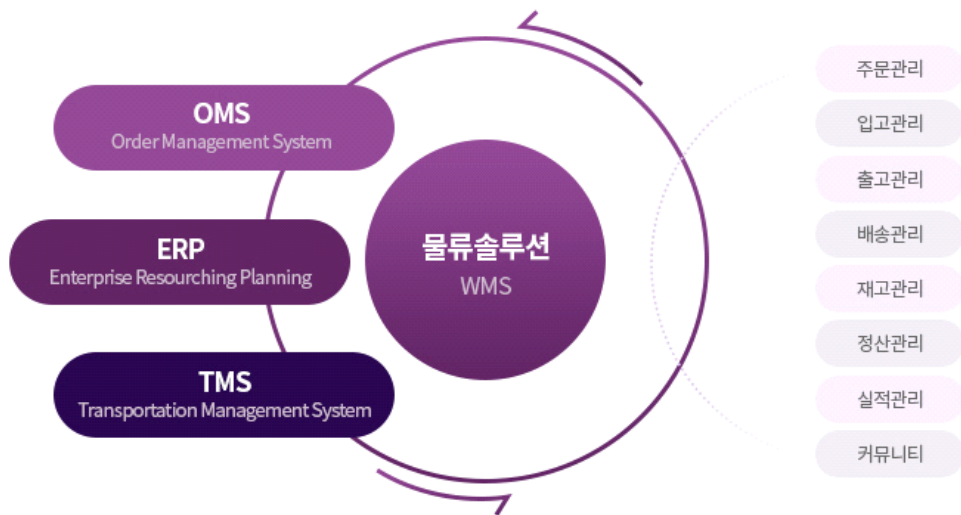
▶▶ 물류사업

동사는 2007년 물류회사 인수를 계기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류사업부문에서 3PL, 국제물류, 물류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실적을 고려 시, 6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사업부문이다. 동사는 총 18명의 인력이 물류사업부문에 소속되어 물류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PL은 주로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물 등의 발주를 받아 동사에서 적재, 패키징, 검수 및 재고확정 등 일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물류는 고객이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일 등 16개국으로의 운송 서비스가 가능하며, 항공, 해상을 비롯하여 정기편이 없는 오지 및 특수화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류솔루션은 화물의 입·출고 관리, 재고 관리, 보관위치 관리, 출고지시 및 피킹 관리, 합포장 관리, 택배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출고 업무의 투명성과 창고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2. 물류솔루션 서비스 개요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자동차부품사업

주력 기술사업인 자동차부품사업은 관계사인 케이엠엔아이를 통해 GM코리아에 납품되고 있으며, 주로 Recliner, Track & Drum, Rear Back을 용접, 조립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다. 안산공장에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042.3시간 동안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기가동가능시간인 1,903.9시간 대비 55%의 가동률을 기록했으며, 총 8명의 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안산공장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금형사업

천안 소재 공장에서 초정밀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고 있으며, 최첨단의 제조 설비와 최고 수준의 정밀프레스 디자인 설계능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용 공조, 시트, 엔진 금형을 비롯하여 전자 및 발전기 금형 등을 생산하고 있다. 동사는 금형사업부문에 총 21명의 인력이 속해 있으며, 시작품 제작 및 생산을 위한 와이어컷팅기 8대, CNC 머시닝센터 4대, 밀링기 1대, 연마기 7대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금형설계를 위해 Excess-Hybrid, Sejour-PX Express 등의 프레스 전용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분석, 공정설계, 부품설계 및 3D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다.

▶▶ 원전부품사업

원전부품사업부에서는 핵 연료봉 지지 골격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총 1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1기에는 1회당 177개의 집합체가 사용되고, 1개의 집합체는 11개의 지지 골격체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지지 골격체는 230여 장의 격자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사는 이러한 격자판 부품을 프레스 가공을 통해 제조하고 있다. 제품생산 후 3차원 측정 및 형상측정, 육안검사 등의 검수를 통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그림 4. 동사 원전부품 생산공정 및 생산현장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주요 연혁

1993년 (주)컴퓨터신문으로 설립된 이래로 생활정보지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07년 물류회사 (주)네덱스를 흡수합병하고, 2009년 자동차부품사업으로 진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표 3. 주요 연혁

일자	연혁
2019.10	동탄물류센터(경기도 화성시) 설립
2019.05	본점 이전(경기도 안산시)
2018.03	물류 안성사업본부 설립
2013.06	금형사업 및 원전부품사업 진출 천안사업장 설립
2009.03	자동차부품사업 진출
2008.04	(주)SG&G로 상호 변경
2007.12	물류회사 (주)네덱스 흡수합병
2000.04	코스닥 시장 상장
2000.01	(주)가로수닷컴으로 상호 변경
1999.12	인터넷쇼핑몰 '가로수Shop' 운영
1998.04	인터넷 사이트 garosu.co.kr 서비스 개시
1994.06	(주)가로수로 상호 변경
1993.11	(주)컴퓨터신문 설립

*출처: 사업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II. 시장 동향

완성차 증속적인 사업구조를 보이는 자동차부품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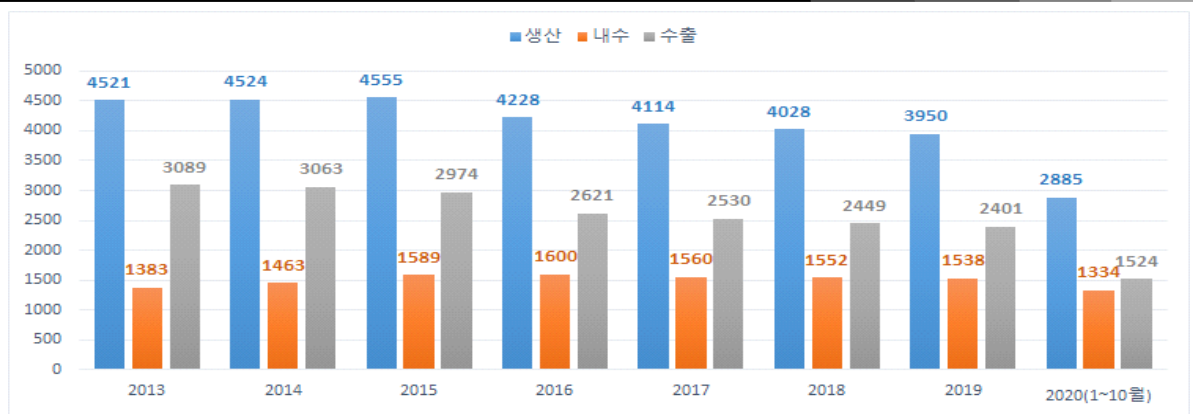
동사는 승용차 시트 부품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Recliner, Track & Drum, Rear Back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 규모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의 산업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사의 주요 제조기술은 자동차 시트 부품으로 동사의 관계사이자 GM코리아 1차 벤더인 케이엠앤이를 통해 매출을 시현중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자동차부품, 자동차 시트 산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 자동차산업 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 및 KISLINE 산업보고서(2020)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실적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95.0만 대로, 국내 판매 153.8만 대 및 수출 240.1만 대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455.5만 대를 생산한 이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인다.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 실적은 2019년 동기간 대비 11.7%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10월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내수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 국내 자동차산업 규모 (단위: 천 대)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 및 KISLINE 산업보고서(2020), NICE평가정보 재구성

2020년 하반기 자동차산업은 COVID-19의 영향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모두 제한적인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COVID-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방역 강화와 일부 유럽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졌으나 각국 정부의 경제활동 재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는 2021년에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요 위축, 재고물량 적체 등 제한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자동차산업은 2020년 기저효과로 인해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와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저효과 및 내수 부양에 따른 수요 확대를 통해 성장세가 기대된다. 국내 산업 또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 심리 개선으로 친환경차 수요 확대, 캠핑 문화 확산에 따른 SUV 수요 증가 등 내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부품산업 동향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 차체, 자동차 엔진용 부품, 자동차 동력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자동차 1대는 약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완성차의 크기 및 기능에 따라 소요 부품이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표 4.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 자동차부품 제조업

소분류	세세분류	품목 예시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기화기, 피스톤, 피스톤 링 및 밸브, 엔진용 냉각장치, 실린더 블록 및 헤드, 흡·배기장치 제조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조립 패널, 자동차용 보닛(덮개), 차량용 문짝(도어), 범퍼, 계기반 조립품, 자동차 도어, 천장, 트렁크 제조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기어 및 수동·자동 변속기, 클러치 및 부분품, 구동차축 제조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발전기·교류기, 점화 플러그, 점화 배선, 파워 윈도우 시스템, 제무기, 제상기, 와이퍼, 차량용 전압 조절기, 크랭크 회전식 모터 제조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완충기·서스펜션 및 그 부분품, 운전대 및 운전 박스, 기타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브레이크 및 관련 부분품, 자동차용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제동장치 및 부분품 제조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자동차용 의자(시트) 및 관련 부품 제조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에어백 조립품, 방열기, 소음기, 냉각장치, 보기륜, 배기관, 연료탱크, 차륜, 안전벨트, 새시 프레임 제조

*출처: 통계청, IBK경제연구소

자동차부품산업은 자동차산업의 후방산업으로 완성차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수요의 대부분이 완성차 조립용인 중간재 산업으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국내 자동차부품산업은 특정 완성차 업체에 종속된 전속적인 납품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업안정성 측면에서는 부품사들에게 긍정적이지만 대부분 업체의 수익성이 완성차 업체의 수익성에 종속되는 형태로 부품업체의 자유로운 경쟁 및 영업행위를 제한하여 독자 성장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표 5.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특징

구분	특징
기술집약적 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은 단순부품에서 정밀가공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방산업인 완성차의 수요,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후방산업인 소재산업에도 파급효과가 큰 기술집약적 산업임.
중소기업 위주의 시장구조	자동차부품은 특성상, 안정성, 정밀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고기술을 요구하고 다양성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형 산업임.
계열화된 시장구조	모기업과 계열사간 기술, 자금, 인력 면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평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보이며, 시장구조가 폐쇄적인 산업 내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기술력, 양산능력, 모기업과의 관계 등이 선결되어야 함.
차별화 심화	완성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플랫폼 통화 노력 등을 배경으로 자동차부품산업도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형화 이외에도 모듈화 및 전장화, 글로벌 아웃소싱 등이 확대되면서 업체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출처: 융합금융처(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2020년에 발표한 ‘2020년 자동차산업 평가와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자동차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4.4% 줄어든 182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산업의 경기 수준은 2017년 회복에서 호황을 지나 2019~2020년 둔화단계에 진입했으며, 생산능력과 가동률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 고용 24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주력 산업이지만 부품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고용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COVID-19 사태로 다수의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자동차부품사는 수주 감소 및 자체적인 운영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시장 동향

자동차용 신품 의자(C30393100)는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및 자동차 등의 운송장비용 의자 및 시트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단순한 기능에서부터 고기능성 소재 및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전방산업인 완성차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인 소재, 전기·전자, 비철금속 등 연관산업이 다양한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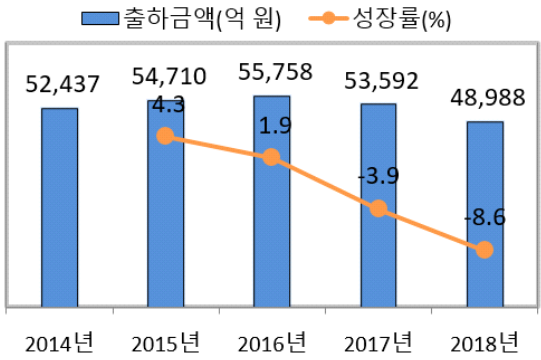
표 6. 전후방 산업(Value Chain)

후방산업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전방산업
		
소재, 전기·전자, 비철금속, 철강, 화학, 섬유산업 등	운송장비용 의자 및 시트를 제조하는 산업분야	완성차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 다양한 산업분야
대진폴리머, 포스틸, 일정실업 등	다스, 현대엠시트, 애디언트코리아, 한서실업 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출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략로드맵(2019),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 2014~2018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출하금액은 2014년 52,437억 원에서 2018년 48,988억 원으로 연평균 1.69% 감소하였으며, 업체당 평균 출하금액은 2014년 394억 원에서 2018년 39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7.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시장 현황

구분	출하금액(억 원)	성장률(%)	업체 수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시장 현황
2014년	52,437	-	133	 <p>출하금액(억 원) — 성장률(%)</p> <p>52,437 54,710 55,758 53,592 48,988</p> <p>4.3 1.9 -3.9 -8.6</p> <p>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2015년	54,710	4.3	127	
2016년	55,758	1.9	129	
2017년	53,592	-3.9	123	
2018년	48,988	-8.6	123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광업·제조업조사(품목편)(2014~2018년),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국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시장은 부품조달이 글로벌화 되고 초대형 선진 부품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신차 출시효과 및 차종의 상급화, 편의사양의 다양화 및 대중화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기술분석

자동차 시트 부품 디자인부터 설계, 생산까지 수행

소형부터 준중형, SUV까지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에 활용되는 자동차 시트 부품을 제조, 납품하고 있으며, 관계사인 케이엠앤아이와의 협업을 통해 시트 완제품을 GM코리아에 납품하고 있다.

■ 자동차 시트

자동차 시트(Automotive Seat)는 장기간 운전 및 탑승 시에 안락감을 유지하고 사고 시 운전자 및 승객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차량의 필수 부품이다. 자동차 내장부품 중에서 사람과 가장 많은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며,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기능성, 편의성, 디자인은 물론 사고 시 인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안전 부품으로 운전자 및 승객을 최대한 보호하는 자동차 핵심 부품으로 존재한다.

자동차 시트는 일반적으로 쿠션부와 철제 구조물로 이루어지며 철제구조물은 백 프레임, Recliner(시트 트랙과 백 프레임을 연결하는 부품으로서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 시트 Track으로 나뉘어진다. 자동차 시트가 탑승자를 제대로 고정해주지 못하면 탑승자가 안전벨트와 에어백으로 보호받는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시트는 탑승자를 단단히 고정시켜줘야 하지만, 동시에 자동차 시트 구조물이 충돌에너지를 흡수해 탑승자에게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그림 6. 자동차 시트 구조



*출처: CAE를 적용한 자동차 시트용 라운드 리클라이너 개발/Dyetec Vision,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자동차 시트 기술동향

자동차 시트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함에 따라 발열시트, 통풍시트, 지능형 시트 등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이에 섬유소재 기술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발열시트의 경우 국내에서는 직물형 발열시트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해외의 경우 일부 제조사에서 신축성이 전혀 없는 탄소 섬유나 전도성 잉크로 프린팅한 발열부가 구비된 발열제품을 제조, 시판하고 있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시트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열을 방출하고 저장하는 Smart Fabric 시트도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다.

자동차 시트는 몸을 안정시켜 착좌감을 향상시키거나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표면에 홈을 설계하는데, 커버를 쿠션재 쪽으로 집어넣어 쿠션재 내부에 짜 넣은 와이어에 공업용 파스너(Fastener)로 고정하는 ‘서스펜션 구조(Suspension Structure)’ 공법을 사용한다. 서스펜션 구조 공법은 작업자의 숙련도가 요구되고, 작업 시 부상의 위험이 높으며, 상당한 공정 시간을 요한다. 또한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막 형태의 접착제와 완만한 요철 시트를 사용하는 쿠션재를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는 시트 디자인의 자유도를 향상시키면서도 비용의 30%를 절감할 수 있고, 자동차 한대당 시트에 사용되는 섬유의 500~800g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 시트 제조 기술은 디자인 강조, 액티브 안전기술 발전, 경량화 등을 목표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 시트가 외장에 의존한 종속적인 디자인이었으나, 근래에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트 디자인에서도 안락성, 심미성,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탑승자의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요건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시트는 충돌 후 작동하는 에어백 안전 시스템으로부터 최근에는 추가적인 센서장착을 통한 승객 자세 감지기술과 추가적인 액추에이터 장착으로 운전자의 안전자세를 확보할 수 있는 액티브 안전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완성차의 내장부품 중에서 시트의 무게는 자동차 1대당 60~180kg에 달하기 때문에, 시트 프레임에 마그네슘합금을 사용하거나 가죽 자체를 쿠션을 겸비한 신축성 있는 천으로 만드는 등 경량화를 진행하고 있다.

■ 동사 보유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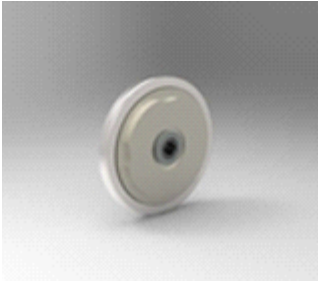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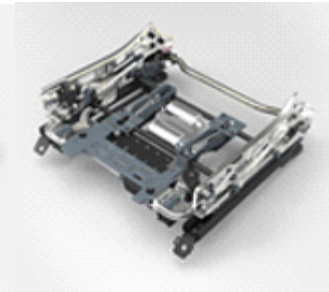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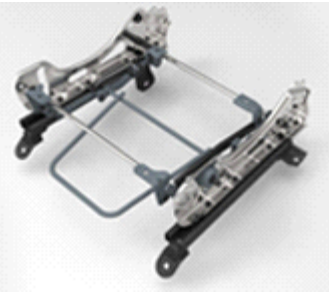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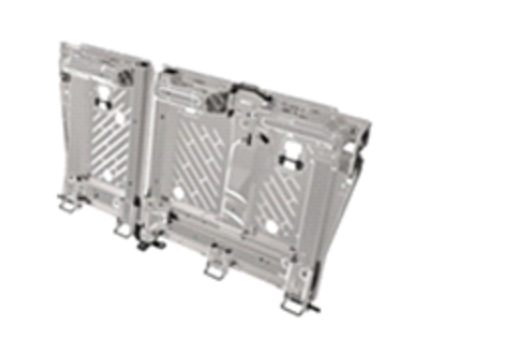
▶▶ 자동차부품사업 관련 기술

동사는 GM코리아의 마티즈, 쉐트라, 토스카, 라세티, 말리부 등의 시트 개발 및 제작 이력이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GM의 Supplier of the Year 상을 수상하는 등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아베오, 트렉스,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등 차량의 형태,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시트 부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

동사의 장점은 자동차 시트의 기능부품부터 디자인까지 전 과정을 자체설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인 케이엠앤아이와 기술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금형 및 원전부품 제작 사업을 시작하여 주요 공정에 활용되는 프레스 금형의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동사가 가진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동사 제품

구분	제품		
Recliner 제품			
Track & Drum 제품			
Rear Back 제품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주력 제품인 자동차 시트 프레임의 경우, 핵심 기술관련 특허는 계열사 케이엠앤아이 소유로 파악되며, 동사는 히터 코어용 앤드캡 관련 특허 2건과 가로수를 비롯한 13건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의 보유특허 기술은 제조 핵심 공정 기술인 프레스 공정과 관련된 것으로 기존에 용접을 통해 제작하던 제품을 하나의 모재판으로 드로잉, 피어싱, 버링, 트리밍 공정 수행을 통해 일체 형성함으로써 가공 효율 증대 및 내구품질 향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동사는 계열사를 통한 기술연계뿐만 아니라, 자체 제조 공정 및 장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 및 생산인프라 기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동사 보유 지식재산권

기술구분	등록번호	기술명
특허	10-1449252	자동차 히터 코어용 앤드캡 및 그 제조방법
특허	10-1438310	자동차 히터 코어용 앤드캡의 제조장치
상표권	41-0027817 외 12건	가로수 외

*출처: KIPRIS, NICE평가정보(주) 재구성



▶▶ 금형사업 관련 기술

현재 동사는 천안공장에서 정밀 프레스 금형과 원전 부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금형 발생 매출의 15~20% 가량이 자체 시트제작에 활용되고 이 외에도 자동차 엔진이나, 라디에이터, 공조장치 제작 등에 활용되는 금형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전용 설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품 분석, 공정설계 및 부품설계, 3D모델링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일반 프레스 금형을 비롯해 프로그래시브(연속형)금형까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프레스 금형은 프레스에서 얇은 판재의 금속을 전단, 굽힘, 드로잉, 압축, 성형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 틀을 총칭하며,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프레스 가공에 있어 금형은 제품의 정밀성과 불량률, 금형 내구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원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사는 자체 금형 기술을 보유하여 빠른 기술적 대응 및 지속적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원전부품사업 관련 기술

한편, 프레스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부품인 핵 연료봉의 지지골격체(지지격자)사업도 수행 중이다. 지지격자는 연료봉의 안내관을 묶어주는 부품으로 기계적 강도나 내진성능 등에 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원자력 발전소 1기에는 1회당 177개의 집합체가 사용되며 1개의 집합체는 11개의 지지 골격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지 골격체 1개는 230여 장의 다양한 날개 격자판으로 구성되며, 동사는 그 가운데 여러 종류로 구성된 날개 지지 격자판 부품을 제조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공정은 프레스 가공, 세정, 도금 및 열처리(외주), 포장 및 출하 순으로 파악된다.

지지격자의 주원료인 지르코늄(Zr)은 중성자를 거의 흡수하지 않으며, 내열 및 내부식성이 우수한 특징으로 원전부품에 주로 사용된다. 지르코늄은 그 물적 특성상 가공이 까다로운 편인데, 동사는 프로그래시브 금형 기술을 기반으로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2년간의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2013년 8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사업부는 현재,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나, 정밀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회복 가능성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 물류사업 관련 기술

제조 기술 외에도 3자물류 및 운송주선을 비롯하여 다수의 계열사를 통한 사업다각화를 실현하였다. 물류사업은 입출고 및 배송, 화물추적 등의 관리를 위한 솔루션 구축이 주요 기술경쟁 요소인데, 관계사인 SG데이터를 통해 최적화 솔루션을 구축 적용 중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업데이트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 SWOT 분석

그림 7. SWOT 분석



*출처: NICE평가정보(주)

▶▶ (Strengths) 다양한 사업분야 및 축적된 기술력

동사는 기술사업분야로 자동차부품, 금형, 원전부품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그 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통한 매출 다각화를 이루었다. 또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Weaknesses) 관계사 및 내수 위주의 매출 구조

동사의 물류사업부문 매출액의 60% 이상이 관계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사업 또한 대부분이 관계사인 케이엠엔아이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계사 및 내수 위주의 매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Opportunities) 자동차 시트의 고급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자동차부품산업은 전방산업의 제한적 수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수요 변화에 대응 가능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편안하고, 고급 시트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국내외 신규 매출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Threats) COVID-19의 장기화로 인한 자동차 시장 위축

COVID-19의 영향으로 전방산업의 제한적 수요로 인한 자동차부품 산업 또한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동사의 매출구조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완성차 업체의 글로벌 소싱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 및 가격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재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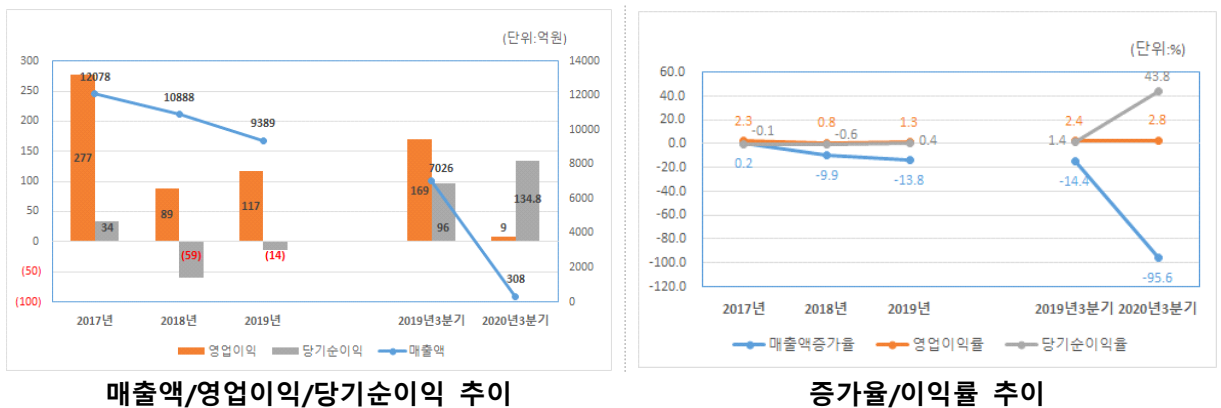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재무구조 변동 발생

최근 2년간 매출 감소세를 이어오던 동사는 2020년 부로 지배회사로서의 지위가 해제되며 3분기 누적매출도 크게 감소했다. 다만,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과 관계기업투자이익 증가로 분기 순이익은 크게 증가했으며, 부채 정리 효과로 재무부담 또한 완화되었다.

■ 자동차부품 제조와 건설부문 실적 부진으로 매출 감소세

생활정보지 ‘가로수’ 사업으로 시작해 패션, 물류, 자동차 시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온 동사는 2017년 이후 매출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9년에는 1조 원에 못 미치는 9,389억 원(YoY -13.8%)의 매출을 시현하였다. 전방 완성차 제조 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자동차 부품, 방직/시트봉제 생산 감소와 건설업 침체로 인한 진행공사 건 감소로 건설 분야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한편, 2019년 연결기준 주요 사업별 매출비중은 자동차부품 제조부문 78.67%, 의류수출부문 31.84%, 건설부문 18.98% 등을 기록했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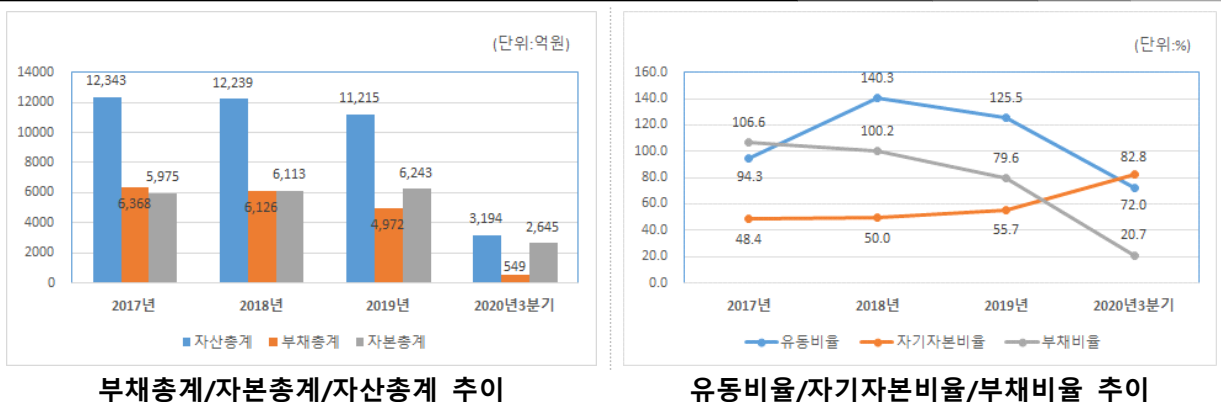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부채총계/자본총계/자산총계 추이

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부채비율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 투자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원가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전년대비 소폭 개선된 매출액영업이익률 1.3%를 기록하였는데, 수익구조상 매출원가율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영업수익성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물류센터 외 투자부동산의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571억 원의 기타수익이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매출액순이익률은 0.4%를 기록하며 2년간의 적자를 탈피하게 되었다.

■ 지배회사 지위 해제되며 2020년 3분기 매출 급감하나, 순이익은 크게 증가

2022년 1월 1일부로 위임약정 계약 해지로 동사의 지배회사로서의 지위가 해지되면서 주요 계열사인 SG고려, 케이엠앤아이, SG세계물산 등의 연결회계 작성 주체가 당사에서 (주)마이크로 오피스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3분기 누적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95.6%가 급감한 308억 원을 기록하였고, 19년 기준 매출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던 의류수출과 건설 관련 매출은 제거되며 주요 사업부문은 물류와 자동차부품 제조, 금형 제작으로 재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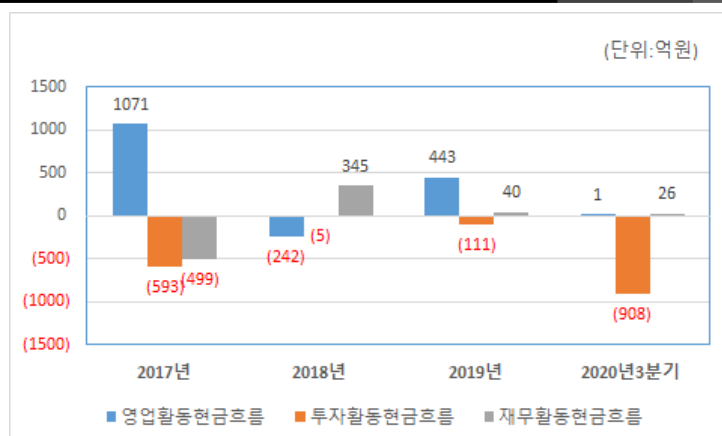
큰 폭의 매출 변동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8%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되는 한편, 위임약정 해지에 따른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111억 원의 유입과 관계기업투자이익 71억 원의 증가 효과로 매출액순이익률은 43.8%로 대폭 향상되었다.

연결종속사의 감소 영향으로 총자산 규모 역시 2019년까지 1조 원을 상회했던 수준에서 2020년 3분기 기준 3,19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다만, 부채도 대거 정리되며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되었고 자기자본비율 82.8%, 부채비율 20.7%, 유동비율 72.0%를 기록하며 산업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 영업현금창출력 양호, 기말 현금 확보로 현금유동성 개선

2019년 순이익의 흑자전환과 매출채권 대거 회수, 재고자산의 감소 등에 힘입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443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세로 전환되었다. 유입된 영업현금으로 관계사로의 대여금의 지급과 투자부동산 취득 등 투자활동 소요자금 111억 원을 충당한 뒤, 잉여자금은 사내 유보해 기말 보유현금이 904억으로 증가하는 등 양호한 자금흐름을 보였다.

그림 10.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9), 3분기보고서(2020)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지배구조 개편 및 COVID-19로 인한 시장 변화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지배회사의 지위가 해제되었으나, 지분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어 동사 대표이사의 SG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외부적으로는 COVID-19로 인한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었으나, 물류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배구조 개편

2010년 12월 30일 위임약정 계약을 통해 동사는 SG그룹의 주요회사들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그에 따라 SG고려, 케이엠앤아이, SG세계물산 등 20여 개 회사를 종속 기업으로 편입시켰으나, 위임약정 계약이 해지되어 지배회사의 지위가 2020년 1월 1일부로 해지되었다. 다만, 그룹 내 지분 구조의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사 대표이사의 SG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의 개편은 있으나, 동사의 주요 사업인 물류 및 자동차부품 사업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룹 내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COVID-19의 영향

COVID-19로 인해 완성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며, 2020년 3분기까지 자동차부품 사업의 매출액을 고려 시,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부품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영업력 및 기술력 강화 등 사업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는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사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사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사업의 매출액은 COVID-19로 인해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

동사의 주요 사업인 물류사업의 고객 다양화를 위해 전략적 제휴 및 M&A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보화, 자동화를 통한 일관된 수·배송을 통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국제물류, 3PL 등 기존 주요 물류사업과 더불어 물류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솔루션 관련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1. 동사 물류산업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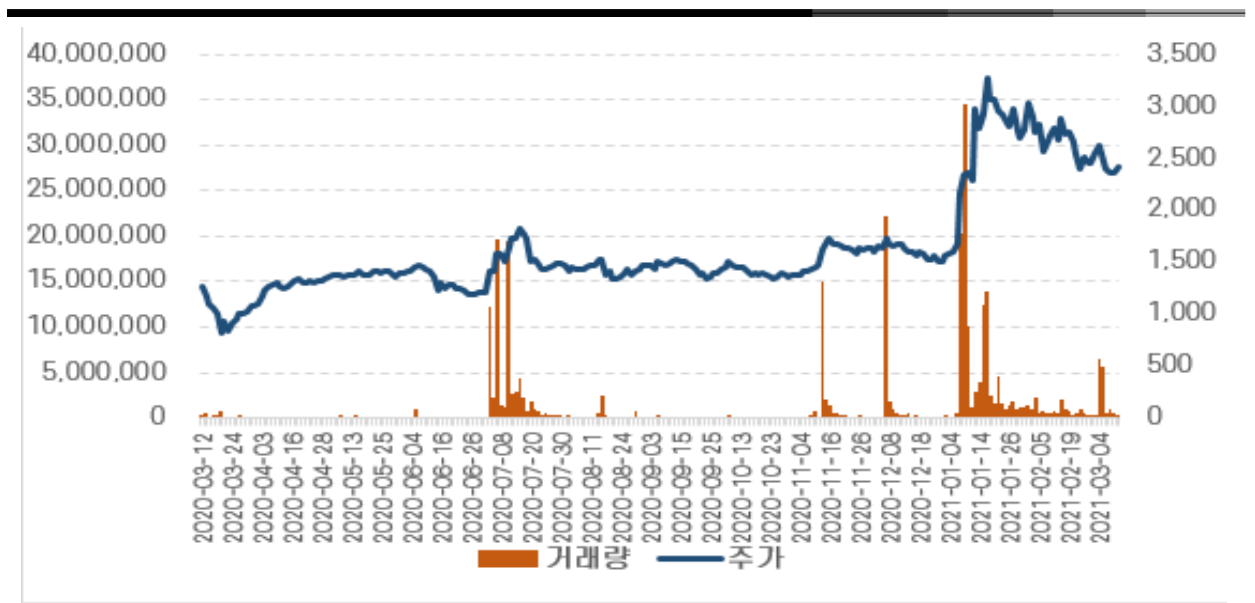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6개월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출처: Kisvalue(2021.03.)